

坪里洞遺蹟出土의 雙鈕付蓋狀圓板에 관한 覺書

시미즈 야스지(가시하라고고학연구소)

역: 무라마츠 요스케

I. 시작

샤먼이 祭禮등을 행할 때, 거울을 부수는 행위 등에 의해 거울 본래의 기능과는 다른 악기의 기능처럼 사용한 예가 있다고 한다¹. 그러한 사용법이 중국동북지방과 제주도 등에서 샤먼의 민속 예로 보고되고 있다. 거울이 가진 본래의 기능은 빛을 반사해 영상을 비추는 것이었지만, 그것 이외의 기능을 가지는 사례이다. 이러한 민속학적 사례 외에도 일본열도의 고분시대에 있어서는 거울의 외면에 방울이 부착되어진 「鈴鏡」이 있다. 거울의 면은 연마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빛을 잘 반사하고 아름다운 음색이 울리도록 하였다고 생각된다. 또 鈴鏡은 샤머니즘과의 관계가 명확한 것으로 무녀를 표현했던 人物埴輪의 허리 부분에 鈴鏡을 늘어뜨리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것에서부터 거울의 사용법에 관해서는 빛의 반사 기능 뿐만 아니라 음향기능도 모두 고려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진다.

한반도의 고대 샤머니즘과의 밀접한 관계가 확인된 이형청동기 중 圓蓋形 청동기는 이러한 사례의 하나로 생각된다². 이전 단계의 槐亭洞遺蹟, 東西里遺蹟출토 圓蓋形 동기³가 鈕가 없는 凹面 측을 鏡面 모양으로 연마해서 빛을 반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단계의 舍松里遺蹟출토 圓蓋形銅器⁴는 凹面側을 마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빛을 반사하는 기능을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圓蓋形銅器가 악기의 일종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李健茂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⁵. 고고학적으로는 실증이 어려운 문제이지만 크게 彎曲하는 형상 등은 棒 등을 사용하여 때리는 악기로는 어울리는 형태이겠다.

圓蓋形銅器를 언급했던 이전의 논문에서는² 圓蓋形銅器의 빛 반사기능과 음향기능 가운데 음향기능만을 계승하는 것으로 (傳)익산출토 圓形有文銅器⁶와 八珠玲으로 파악했다. 그 근거로써는 원개형동기와 크기만 다른 것이 아니라 크게 만족하는 기면과 그 요면 측에 빛을 모티브로 한다고 생각되는 문양이 있는 것 등에서 이 요면 측은 원개형동기의 요면 측이 거울 면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의 자취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빛의 반사기능에 대해서는 원개형동기, 원형유문동기, 팔주령의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동 시기에 존재했던 다뉴경으로 수렴했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전회까지의 추론을 기초로 국립대구박물관 소장 평리동 유적 출토 雙鈕付蓋狀圓板⁷을 관찰하는 기회를 얻었다. 이것과 함께 다뉴경의 사용법의 一端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싶다.

II. 異形靑銅器와 金屬音響

한반도의 고대 샤머니즘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형청동기는 이견무의 연구에 의해, A, B, C

군에 대별되는 변천의 틀이 세워졌다⁸. 그 후, 後藤直 등에 의해 분류설정의 유효성과 약간의 改變이 행해지고 있다. 특히, 後藤이 圓蓋形銅器를 이형청동기에 포함시킨 것⁹, 宮里修가 「(이형청동기들)의례에 관련했던 도구로써 이해하면, 製法의 공통성을 넘어서 圓蓋形銅器, 小銅鐸, 多鈕鏡을 첨가할 만 하다¹⁰. 라고 했던 것은 중요하다. 여기까지 이 提言으로 끝내고 이형청동기에 원개형동기, 동탁, 다뉴경을 포함하여 이형동기의 A, B, C 각 군과의 공통관계에서 각 시기와 함께 음향효과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었던가를 고찰해 보고 싶다.

표1은 後藤直이 작성했던 이형청동기의 공반관계에 시기를 더한 것이다¹¹. 금속을 치는 악기라고 하더라도 그 형상과 크기에 따라 다양한 음향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탁과 령의 음색이 다른 것은 자명한 것이고 현대 한국의 민속 타악기인 징과 같이 사용되었던 것이라고 생각되는⁵ 圓蓋形銅器의 음색도 前記의 두 번째와는 다른 것이겠다.

그러면, 각 시기의 음향을 개관해 보겠다. 이형청동기 A군에는 기본적으로 鈴具는 보이지 않는다. 근소하게 남성리유적¹²에서 鈴付防牌形銅器가 보일 뿐이다. 圓蓋形銅器의 총 출토 수 세 점 중 두 점이 A군의 시기에 피정동유적, 동서리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다. 동탁은 피정동유적에서 두 점 출토되고 있고, 이 시기에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다뉴경에 대해서는, 조문경, 세문경이 출토되고, 동서리유적에서만 素文鏡이 발견되고 있다.

B군에서는 鈴具가 성행한다. 八珠鈴, 竿頭鈴, 雙頭鈴, 組合雙頭鈴, 柄付鈴, 錨形鈴이 출현하여 수량도 많다. 그 대신 A군에 보였던 鈴付防牌形銅器는 지금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 圓蓋形銅器에는 合松里遺蹟 출토 예가 있고, 圓蓋形銅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傳)익산 출토의 원형유문동기도 이 시기에 속한다. 동탁은 合松里遺蹟에서 두 점, 入室里遺蹟¹³에서 두 점, 新川洞遺蹟¹⁴에서 한 점 출토되고 있다. 다뉴경은 세문경만이 출토하고 있다.

C군의 시기가 되면, B군에서 성행했던 鈴具도 쇠퇴하고 胡瓜形鈴만 확인된다. 圓蓋形銅器도 이 시기에는 출토되고 있지 않다. 동탁은 九政里遺蹟¹⁵에서 한 점, 貞栢里(採土場)¹⁶에서 여섯 점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형청동기 A군의 시기에는 그다지 鈴具가 발달하지 않았고 圓蓋形銅器와 銅鐸이 제례의 장에서 연주되게 되었다. 또 B군의 시기에는 鈴具가 특히 발달하여 동탁의 음색과 더불어 제례의 참가자의 마음가짐을 북돋우는 것에 차이가 없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圓蓋形銅器와 圓形有文銅器도 존재하는 것으로 금속원판을 棒 등으로 쳐서 울리는 형식의 악기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단, 鈴具의 수량으로는 비교할 수도 없다. 연속한 C군은 확실히 이형청동기를 중심으로 행해졌던 제례가 크게 변질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청동기의 수량, 종류 등은 격감하고 있다. 그 점에서도 鈴具로써는 胡瓜形鈴이 있고, 동탁도 제례의 장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이것에 대응해, 원개형청동기로 대표되는 금속원판을 쳐서 울리는 형식의 것은 없어지고 있다. 생각한 바와 같이, 이 단계에 원개형동기와 같은 모양의 타악기가 존재하지 않았는가, 어떤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III. 坪里洞遺蹟 출토 雙鈕付蓋狀圓板

圓蓋形銅器와 형태가 유사한 점에서 관련이 있는 경상북도 대구시 평리동유적 출토 雙鈕付蓋狀圓板에

주목하였다.

경상북도 대구시 평리동유적은 1974년 臥龍山 구릉에서 무기류, 마구류 등과 함께 각종의 청동기가 출토되던 유적이다. 유물의 종류와 수량에서라면 파괴되었던 유구는 일정의 연대폭을 가지고 있었던 복수의 묘일 가능성도 있다.

각종 청동기 중에는 동경도 포함되고 있지만, 평리동유적의 거울군은 영천 어은동유적 출토 거울군¹⁷과의 비슷함이 지적된다. 漢鏡을 모방했다고 생각되는 방제경은 어은동 거울이 14.9cm, 평리동 거울이 14.8cm로 거의 같은 크기이다. 또 중형거울로써 虬龍文鏡이 공반하는 것, 소형방제경이 공반하는 것 등 공통점이 많다. 평리동유적 출토 일괄유물 중에는 전기의 것처럼 동경으로써 명확한 一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동경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청동기도 있다. 그것이 쌍뉴부개상원판이다. 이 命名에 관해서도 어떤 의미에서 이 쌍뉴부개상원판이 「동경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두 개의 뉴를 가진 사시, 뉴가 중심에 없는 것 등에서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에 존재했던 다뉴경과의 관계를 고려할 만한 것이겠다.

평리동유적에서는 두 점의 쌍뉴부개상원판이 출토되고 있고, 한 점이 圖化되고 있다¹⁸. 이 도화되고 있는 것을 쌍뉴부개상원판 A로 하고, 도화되지 않는 것을 쌍뉴부개상원판 B라고 한다.

• 雙紐付蓋狀圓板 A

직경 19.9cm, 두께 약 0.5cm, 紐 길이 2.25cm이다. 紐 높이는 1.7cm를 측정했다. 전체적으로 조잡하게 만들어진 것이며, 콤파스모양 공구를 사용한 주형에 음각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아마 콤파스상의 기구에 의해 대략적인 윤곽선을 새긴 후, 음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紐의 바로 위와 紐의 오른쪽 경사 아래쪽에 결손이 보인다. 두 점 모두 凹面측에서부터 힘이 가해지고 있다. 紐의 바로 위의 결손은 조각조각 찢어진 것과 같이 접혀서 구부러져 있다.

紐의 뒤쪽 경사의 위쪽의 거울 테두리에는 폭 1cm 등의 결손이 있지만 이 부분은 제품 완성 후의 결손이라기보다도 주조시의 쇳물 회전이 양호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雙紐付蓋狀圓板 A에는 전면에 걸친 研磨마무리가 보이지 않는다. 주형에서 꺼냈을 때에 鑄에 끼여 있는 것 등을 제거하는 것 이외에는, 굵은 모래 등을 이용해서 대충 연마했었을 것이다. 기면의 거의 전체가 鑄肌라고 말해도 좋다. 특히 주의할 만한 것은 紐의 부착이 없는 凸面측도 凹面측과 같이 鑄肌가 남겨져 있고, 거울면과 같이 연마되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 점이다. 거울 테두리 端部에는 鑄에 붙어 있는 것을 없앤 후, 마멸했던 흔적이 보인다. 紐孔에는 명확한 끈이 닳은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 雙紐付蓋狀圓板 B

직경 20.2cm, 두께 약 0.5cm, 紐 길이 2.4cm이다. 기본적인 관찰소견은 쌍뉴부개상원판 A와 다른 경우가 없기 때문에, 개요만을 서술한다.

뉴의 왼쪽방향에서 균열이 생기고, 좌측으로 향한 뉴의 아래쪽에서 멈춰있다. 凸面측에는 좌측으로 향한 중심부 방향으로의 段差가 있다. 이것은 주입 시 주형에서 단차가 생겨 상하로 어긋나기 때문에 鑄에 붙어 있는 것이 발생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전체적으로 쌍뉴부개상원판 A와 같은 형태로 기본적으로 주표면을 남기고 있다. 그러므로 쌍뉴부개상원판 B의 凸면도 경면처럼 연마되어 있지는 않다. 거울 테두리부분에는 주에 붙은 것을 제거한 후, 마멸했던 흔적이 보인다. 명확한 뉴공의 끈이 닳은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VI. 考察

雙鈕付蓋狀圓板은 뉴를 두 개 가지는 특이한 형태에서 다뉴경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 방법이었다. 단, 다뉴경의 거울면에 해당하는 側이 凸面인 점과 뉴의 붙어있는 側 다시 말하면 다뉴경의 鏡背에 해당하는 부분이 無文인 점은 다뉴경과의 관계에 의심을 품게 했다. 그러나 다뉴경을 부장하는 가장 새로운 분묘의 하나라고 생각되는 경상북도 경주시 조양동 5호분⁽¹⁸⁾에서는 다뉴소문경이 출토되고 있다. 더욱이 이형청동기A군을 부장한 동서리유적에서도 다뉴소문경이 출토하고 있고 보다 오래된 단계에서 다뉴소문경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경배문양의 가장 形骸化했던 것으로써 조양동 5호분의 다뉴소문경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 요면의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한 것으로 평리동 유적은 漢式系文物이 대량으로 유입하고 있던 시기의 유적이고, 채집되었던 일괄유물의 중에도 應龍文鏡이 존재하고 그것과 공반해 漢式鏡을 모방했던 鏡이 출토하고 있으므로 이 시기의 한반도의 청동기제작에 漢式鏡이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쌍뉴부개상원판의 거울면 상당부분이 凸面인 것은 동시기에 성행한 한식경과 그 영향을 받았던 방제경 제작기술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쌍뉴부개상원판은 형태상으로는 다뉴경과의 관계를 구하기는 하지만 기면의 대부분을 鑄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빛을 반사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鏡으로써 빛을 반사하는 역할은 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쌍뉴부개상원판은 어떻게 사용되었다고 상정 가능하겠는가. 하나는 의복 등을 장식했다고 하는 裝飾品說, 또 하나는 부장용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明器說, 남은 하나의 가능성은 음향기능을 발휘했던 타악기라고 하는 說이다.

장식품설에 대해서는 장식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주에 넣은 후의 연마를 대부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생각한다면 성립하기 어려운 상정이다. 대표적인 장식유물인 銅泡를 보더라도 문양이 鑄出되었던 것은 물론이고 무문의 것에서도 연마되는 것이 많다. 그러므로 직경 약 20cm에 가까운 대형의 장식품이 연마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명기설을 검토하면 실용적인 기능을 잃었던 부장용의 유물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쌍뉴부개상원판은 이미 조금 소형화하고 있더라도 이상하지는 않다. 직경 약 20cm라고 하는 크기는 다뉴경 중에서는 대형 부류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장식품설, 명기설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쌍뉴부개상원판은 어떠한 방식이든 소리를 울리는 악기였다고 생각하는 편이 적절하다. 단, 평리동유적 출토 쌍뉴부개상원판은 흙의 부착 및 부식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흔 등의 상세한 관찰이 가능하지 않지만 뉴공부분에 현저한 뉴 문질림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제작 당시부터 어느 정도 긴 시간이 사용된 것은 아니고 부장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쌍뉴부개상원판이 두 점 출토하고 있는 점은 음향 기능을 가진 청동기라고 한다면 시사적이다. 後藤直은 출토 유적이 명확한 이형청동기 B군의 간두령, 팔주령, 쌍두령 등에 있어서는 두 개가 한 세트로 출토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¹¹. 두 개의 령구를 교대로 맞닿게 하는 것으로 소리를 울리고 있었던 가능성이 있겠다.

만일 쌍뉴부개상원판의 주요한 역할이 음향기능이었다고 한다면 쌍뉴부개상원판과 다뉴경의 형태상의 유사에서 본다면 다뉴경도 음향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가능성이 있겠다. 다뉴경도 이형청동기와의 공반관계를 가지고 동시에 복수면의 출토를 전하는 것으로 한정해본다면 A군의 시기에는 충청남도 괴정동유적, 충청남도 남성리유적에서 다뉴조문경이 각 두 면씩, B군의 시기에도 전라남도 대곡리유적¹⁹에서 다뉴세문

경 두 면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이형청동기B군의 령구를 중심으로 했던 악기가 2個1對의 세트로써 출토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단, 충청남도 동서리유적에서는 다섯 면의 다뉴경(다뉴조문경 세 면, 다뉴세문경 한 면, 다뉴소문경 한 면)이, 전라남도 초포리유적⁽²⁰⁾에서는 세 면의 다뉴세문경이 출토되고 있고 이들은 다뉴경의 공반관계가 반드시 두 면 한 조의 세트로써 이해되는 것은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원위치에서 출토상황이 확인 가능한 이형청동기의 출토상황을 검토해보고 싶다. 그러므로, 이형청동기는 개발행위에 수반되어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출토상황의 검토에 속한 것은 中國遼寧省瀋陽鄭家窪子 6512호묘²¹ 출토 이형청동기와 전라남도 초포리유적 출토 이형청동기에 불과하다. 정가와자6512호묘는 방패형동기, 喇叭形銅器 등의 이형청동기와 함께 다뉴조문경 및 원개형동기가 출토되고 있다. 원개형동기의 기면, 특히 鈕가 붙지 않은 측의 기면이 연마되고 있는지 어떤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피장동유적, 동서리유적의 기면이 연마되어 거울면과 같이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정가와자6512호묘의 원개형동기도 마연되어 거울면처럼 완성되어졌다고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가와자6512호묘에는 다뉴조문경과 원개형동기의 2종류의 경이 존재하고 있다. 다뉴조문경과 원개형동기는 부장품배치에서도 명확하게 구별되고 있다. 피장자의 두부 상방의 조금 떨어진 위치에 직경 8.8cm의 다뉴조문경이 놓여 있다. 피장자의 두부와 족부에 직경 28cm의 대형의 원개형동기가 그 사이를 거의 등간격으로 직경 15cm의 소형의 원개형동기가 네 점 배치된다. 또 한 개는 마구와 喇叭形銅器와 함께 출토하고 있는 여덟 점의 원개형동기로 직경 31.8~27.4cm의 대형의 원개형동기가 네 점, 직경15cm의 원개형동기가 네 점 출토되고 있다. 부장품의 배치에서 본다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피장자의 두부상방에 위치하였던 다뉴조문경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을 샤먼이 제례 등에 이용했을 때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巫具였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이것에 대응해서, 人體上에 위치하였던 원개형동기의 매장의 위치에서의 역할은 피장자를 사악한 것으로부터 지키는 辟邪를 목적으로 배치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겠다. 그리고, 人體上과 人體의 옆에 악기로써도 이용했다라고 생각되는 대형의 원개형동기가 두 점 일대에 배치되고, 소형의 것에 대해서도 네 점이라고 하는 2의 배수로 되어 있는 것을 중시할만하겠다.

전라남도 초포리유적에서는 이형청동기B군과 함께 다뉴세문경 3면이 출토하고 있다. 이것도 우연히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형청동기의 출토상황에 대해서는 목관 외에 위치되고 있었던 것 밖에 알지 못했지만 관내에 배치되었던 다뉴세문경 3면의 출토상황은 검토가능하다. 인체의 두부상방에 위치되었던 세 면 가운데에서는 가장 큰 다뉴세문경과는 다르게 정가와자 6512호묘 출토의 원개형동기와 대응하는 形으로 인체 측부에 약간 소형의 다뉴세문경과 가장 소형의 다뉴세문경이 銅劍 각 한 형체로 아래에 배치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가와자 6512호묘의 다뉴조문경 및 원개형동기의 출토상황과 초포리유적 출토 다뉴세문경의 출토상황은 거의 대응한다고 생각된다. 결국 정가와자 6512호묘에서는 頭部 위쪽에 배치되었던 다뉴조문경과는 다르게 음향기능을 가진 원개형동기가 두 점 一對로 인체 주변에 위치하고 초포리유적에서는 원개형동기의 대신 다뉴세문경 두 면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배치되고 있다고 상정가능하다. 더욱이 한반도 내에서의 원개형동기의 출토는 각 유적에서 한 점씩 뿐이며 원개형동기의 사용법은 정가와자 6512호묘와 한반도 내의 유적에서는 취급이 다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상기의 것을 고려하면 동서리유적의 다뉴경은 파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지만 복원 직경에서 보면 가

장 면적이 큰 다뉴세문경이 13.5cm, 다뉴세문경이 9.5cm, 다뉴소문경이 9.4cm, 다뉴조문경이 8.1cm, 동심 원문경이 7.0cm이다. 각 段에 크기 13.5cm의 다뉴세문경을 빼면, 다른 4개의 거울은 근사한 크기로 되어 있다. 출토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이것도 頭部 위쪽에 배치되었던 한 면의 거울과 인체 근처에 위치되었던 네 면의 거울로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상, 약간의 고찰을 행해두었지만 쌍뉴부개상원판은 음향기능을 가진 청동기에 많이 보이는 2個一對인 것과 경면 상당부분을 연마하지 않던 점으로 본다면 그 역할은 음향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상정가능하다. 더욱이 쌍뉴부개상원판과 다뉴경에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다뉴경으로도 빛을 반사하는 기능 이외에 음향기능이 수반되었다고 생각하고 싶다.

V. 정리

평리동 유적출토 雙鈕付蓋狀圓板에 대해서 음향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청동기로 생각되어 다뉴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던 경우 다뉴경의 가운데에는 음향기능을 가지고 있던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 경우도 다뉴경의 거울면이 연마되고 있는 것에서 본다면 다뉴경의 주요한 역할은 거울 본래의 기능인 빛을 반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단 부차적인 역할로써 다뉴경도 제례 등의 장소에서 소리를 연주했던 것은 아닌가하고 추측한다. 이 경우 쌍뉴부개상원판과 다뉴경은 샤먼이 제례 등을 행했을 때 인체에 가까운 위치에 매달아 내리는 것으로 샤먼의 격렬한 움직임에 의해 마주치고 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울리는 것은 아니겠는가.

고대에 있어서는 하나의 문물이 가졌던 기능은 현대의 문물보다도 더욱이 다양했을 것이다. 거울에 대해서도 姿見으로써의 역할 이외에 주술적인 역할을 하는 사례는 많다. 또 주술적인 힘이 머무는 부분으로써 거울면 이외에도 鏡背面측의 문양에 큰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대의 거울이 가진 다양성의 하나로써 음향기능을 고려할만한 것일 것이다. 그리고 다뉴경에서 빛을 반사하는 기능이 없어져서, 음향 기능만을 가졌던 청동기가 평리동유적출토의 雙鈕付蓋狀圓板인 것은 아니겠는가.

謝辭

이 논문에 사용했던 평리동유적출토 雙鈕付蓋狀圓板의 사진은 국립대구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2006년 9월에 撮影했던 것입니다. 관찰조사, 촬영에 다양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대구박물관 관장 김정완선생님과 장용준선생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논문 집필에 대해서는, 宮里修씨, 이양수씨, 熊博美씨로부터 교시와 도움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註

1. 秋葉隆 1950 『朝鮮巫俗の現地研究』 養徳社p. 129~133

甲元眞之 2006 「東アジアの青銅器—東北アジアの単鈕素紋鏡を中心として—」 『國學院大學21世紀COE

プログラム2005年度考古学調査研究報告 東アジアにおける新石器文化と日本Ⅲ』 國學院大學21世紀COE

프로그램연구센터 p. 302~305

2. 시미즈 야스지 2006 「원개형동기의 앞뒷면」 『文化財』 국립문화재연구소
3. 李殷昌 1979 「大田市 槐亭洞出土一括遺物調査略報」 『考古美術 第一号~第百号合輯』 下卷 韓國美術史学会
池健吉 1978 「禮山 東西里石棺墓出土青銅一括遺物」 『百濟研究』 第9輯
4. 李健茂 1990 「扶餘 合松里遺跡出土一括遺物」 『考古學誌』 第2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5. 李健茂 1990 「扶餘 合松里遺跡出土一括遺物」 『考古學誌』 第2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p. 35
國立中央博物館・國立光州博物館 1992 『特別展 韓國의青銅器文化』 汎友社 p. 101
조현중 2006 「한반도 선사시대 악기」 『북녘의 문화유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p. 206
6. 李健茂 1984 「伝 益山出土 円形有文青銅器」 『尹武炳博士 回甲紀年論叢』 尹武炳博士回甲紀年論叢刊 行委員會
7. 尹容鎮 1981 「韓國青銅器文化研究 —大邱坪里洞出土一括遺物檢討—」 『韓國考古學報』 10・11 韓國考古學研究會
8. 李健茂 1992 「韓國青銅儀器的研究 —異形青銅器를中心으로—」 『韓國考古學報』 第28輯 韓國考古學會
9. 三船溫尚・後藤直 2004 「復元鑄造と出土遺物から考察する韓國八珠鈴の鑄造方法」 『高岡短期大學紀要』 第19卷
國立高岡短期大學
10. 本書掲載の宮里論文
11. 三船溫尚・後藤直 2004 「復元鑄造と出土遺物から考察する韓國八珠鈴の鑄造方法」 『高岡短期大學紀要』 第19卷
國立高岡短期大學 p. 185
12. 韓炳三・李健茂 1977 「南城里石棺墓」 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第十冊 國立中央博物館
13. 朝鮮總督府編 1925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查報告』 第2冊
14. 尹容鎮 1980 「考古・石造物篇」 『慶尙北道文化財地表面調査報告書 (I)』 慶北大學校博物館
15. 金元龍 1952 「慶州 九政里出土金石併用期遺物에 대하여」 『歷史學報』 1
16. 梅原末治・藤田亮策 1947 『朝鮮古文化綜鑑』 第1卷 養德社
17. 朝鮮總督府編 1925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查報告』 第2冊
18. 國立慶州博物館編 2003 『慶州 朝陽洞 遺跡 II』 國立慶州博物館學術調查報告第13冊
19. 趙由典 1984 「全南 和順 青銅遺物一括出土遺跡」 『尹武炳博士 回甲紀年論叢』 尹武炳博士回甲紀年論叢刊行委員會
20. 李健茂・徐聲勳 1988 「咸平草浦里遺跡」 國立光州博物館
21. 瀋陽故宮博物館・瀋陽市文物管理弁公室 1975 「瀋陽鄭家窪子的兩座青銅時代墓葬」 『考古學報』 1 科學出版社

表1 異形青銅器一覽

道	遺跡	遺構	時期	異形青銅器								主な共伴遺物				
				防 牌 形 銅 器	劍 把 形 銅 器	ラ ッ パ 形 銅 器	鈴 付 防 牌 形 銅 器	八 珠 鈴 形 銅 器	竿 頭 鈴 形 銅 器	双 頭 鈴 形 銅 器	組 合 双 頭 鈴 形 銅 器	柄 付 鈴 形 銅 器	錨 形 鈴 形 銅 器	胡 瓜 形 鈴 形 銅 器	円 蓋 形 銅 器	肩 甲 形 銅 器
咸鏡南道	朝陽里	地下50cm	B						1							
	貞柏里	(採土場)	C												6	
平壤	貞柏洞	97号木槨墓	C												○	○
	南城里	石槨墓	A	3	1									1	1	2
忠清南道	東西里	石槨墓	A	3	2										3	1
	伝 徳山面		B					2	2	2	1					
忠清南道	塊亭洞	石槨墓	A	1	3											1
	伝 大田		A	1												2
忠清南道	合松里	石槨墓	B													2
	伝 論山		B					2	2	2	1					1
忠清南道	伝 公州		C													
	伝 益山		B													
全羅北道	大谷里	石槨墓	B					2		2						3
	草浦里	石槨墓	B						2	2	1	1				4
全羅南道	伝 尚州(洛東江流域)		B					2	2	2	1					4
	新川洞	不明	B					2								2
慶尚北道	入室里	不明	B						1		1	1				6
	九政里	不明	C													2
慶尚北道	竹東里	不明	B						2							2
	伝 洛東江流域		B						2							1
慶尚北道	伝 慶尚北道		B					1								1
	小倉収集品(東博)		C													1
不明	国立中央博物館(M296)		B													
	李養璿収集品(慶州博)		C						1							

(後藤文献より、一部改変)



사진 1. 双鈕付蓋形円板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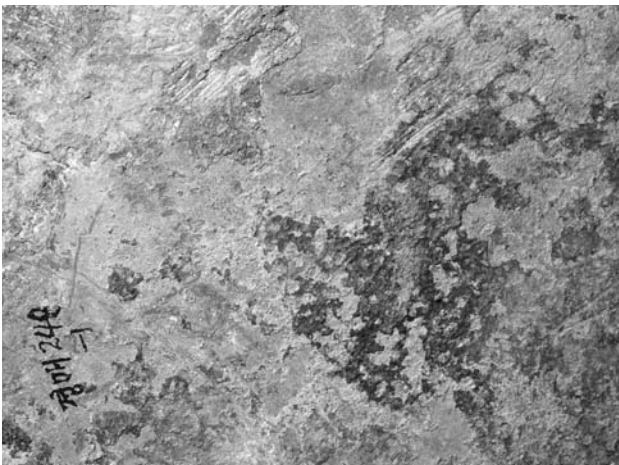


사진 2. 双鈕付蓋形円板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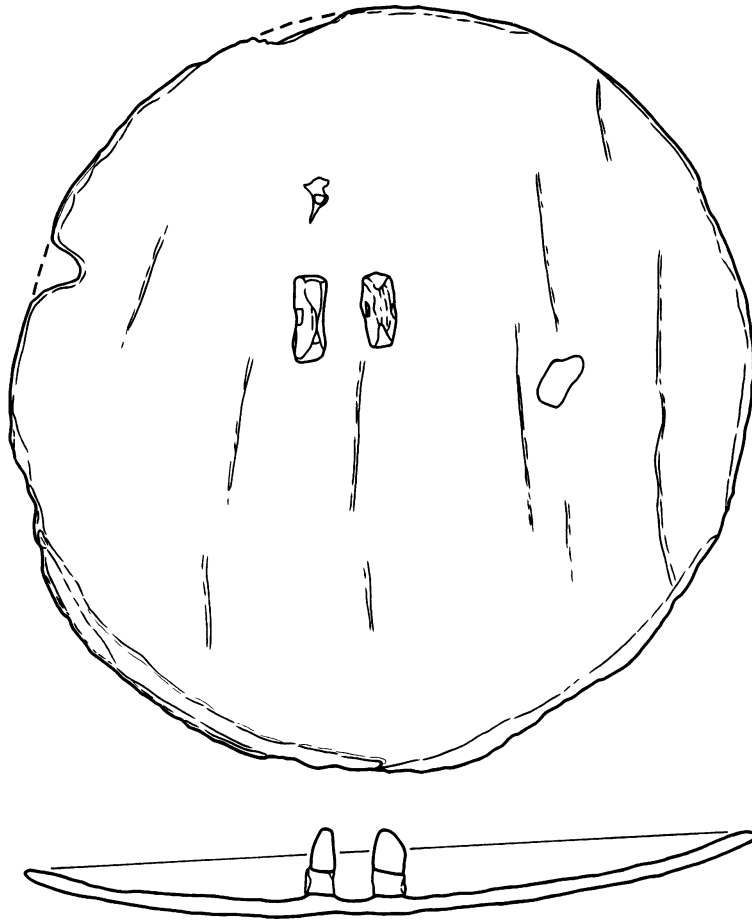


사진 3. 双鈕付蓋形円板 (A)



사진 4. 双鈕付蓋形円板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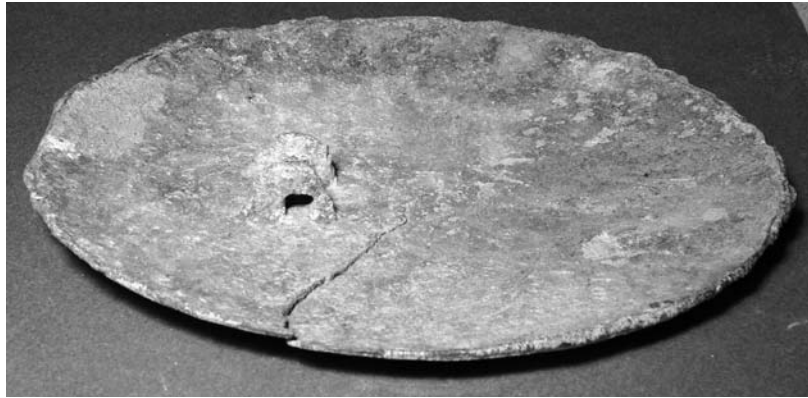


사진 5. 双鈕付蓋形円板 (B)

坪里洞遺跡出土の双鈕付蓋状円板に関する覚書

清水康二

I. はじめに

シャーマンが祭礼等を行う時、鏡を打ち鳴らすことなどによって、鏡本来の機能とは異なり鳴り物のように用いることがあるという(1)。そのような使用法が中国東北地方や濟州島等のシャーマンの民俗例として報告されている。鏡の持つ本来の機能は光を反射し映像を映し出すことだが、それ以外の機能を有する事例である。このような民俗学的事例の他にも、日本列島の古墳時代においては、鏡の外縁に鈴が付けられた「鈴鏡」がある。鏡面は研磨されているため、当時は光をよく反射し、美しい音色を響かせていたと思われる。また鈴鏡はシャーマニズムとの関係が明らかで、巫女を表した人物埴輪の腰部分に鈴鏡を下げているものが確認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ことから、鏡の使用法に関しては光の反射機能ばかりではなく、音響機能も考慮すべき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

韓半島の古代シャーマニズムとの密接な関係が推定される異形青銅器に含まれる円蓋形銅器はこのような事例の一つと考えられよう(2)。古い段階の槐亭洞遺跡、東西里遺跡出土円蓋形銅器(3)が鈕の無い凹面側を鏡面同様に研磨して光を反射する機能を有しているのに対して、新しい段階の合松里遺跡出土円蓋形銅器(4)は凹面側を研磨しないため光を反射する機能を有していない。円蓋形銅器が楽器の一種として用いられていた可能性については、李健茂等が既に述べている(5)。考古学的には実証の難しい問題ではあるが、大きく湾曲する形状などは棒などを用いて打ち鳴らすにはふさわしい形態であろう。

円蓋形銅器を扱った前回の論文では(2)、円蓋形銅器の光反射機能と音響機能のうち、音響機能のみを受け継いだものとして(伝)益山出土円形有文銅器(6)や八珠鈴を考えた。その根拠としては、円蓋形銅器と大きさこそ異なるものの、大きく湾曲する器面やその凹面側に光をモチーフとしたと思われる文様があることなどから、この凹面側は円蓋形銅器の凹面側が鏡面となっていたことの名残と考えたのである。光の反射機能については円蓋形銅器、円形有文銅器、八珠鈴のいずれも有していないので、同時期に存在した多鈕鏡に収斂したものと考えた。

このような前回までの推論も踏まえて、国立大邱博物館所蔵の坪里洞遺跡出土双鈕付蓋状円板(7)を観察する機会を得た。これらをもとに多鈕鏡の使用法の一端について触れてみたい。

II. 異形青銅器と金属音響

韓半島の古代シャーマニズムと深い関わりがあると考えられる異形青銅器は、李健茂の研究により A、B、C 群に大別され変遷の道筋が立てられた(8)。その後、後藤直等によって分類設定の有効性と若干の改変が行われている。なかでも、後藤が円蓋形銅器を異形青銅器に含めたこと(9)、宮里修が「(異形青銅器を) 儀礼に関連した道具として理解するなら、製法の共通性をこえて円蓋形銅器、小銅鐸、多鈕鏡を加えるべき」(10)としたことは重要である。ここではこの提言に従って、異形青銅器に円蓋形銅器、銅鐸、多鈕鏡を含めて、異形青銅器の A、B、C 各群との共伴関係から各時期ごとの音響効果がどのように構成されていたかを考察してみたい。

表1は後藤直が作成した異形青銅器の共伴関係に時期を加えたものである(11)。金属を打ち鳴らすにしても、その形状や大きさによっては様々な音響効果を発揮する。したがって、鐸と鈴の音色が異なるのは自明のことであり、現代韓国の民俗打楽器であるジンのように使用されたと考えられる(5)円蓋形銅器の音色も前記の二者とは異なっていたであろう。

では、各時期の音響を概観してみよう。異形青銅器 A 群には基本的に鈴具は見られない。わずかに南城里遺跡(12)で鈴付防牌形銅器が見られるのみである。円蓋形銅器の総出土数 3 点のうち 2 点が A 群の時期に槐亭洞遺跡、東西里遺跡から出土している。銅鐸に関しては、槐亭洞遺跡で 2 点出土しており、この時期には存在していたことがわかる。多鈕鏡については、粗文鏡、細文鏡が出土し、東西里遺跡からのみ素文鏡が発見されている。

B 群では鈴具が盛行する。八珠鈴、竿頭鈴、双頭鈴、組合双頭鈴、柄付鈴、錨形鈴が出現し数量も多い。その代わり A 群に見られた鈴付防牌形銅器は今のところ確認されていない。また円蓋形銅器には合松里遺跡出土例があり、円蓋形銅器と密接な関係があると考えられる(伝)益山出土の円形有文銅器もこの時期に属する。銅鐸に関して言えば、合松里遺跡から 2 点、入室里遺跡(13)から 2 点、新川洞遺跡(14)から 1 点出土している。多鈕鏡については細文鏡のみが出土している。

C 群の時期になると、B 群で盛行した鈴具も衰退し、胡瓜形鈴のみとなる。円蓋形銅器もこの時期には出土していない。銅鐸は九政里遺跡(15)で 1 点、貞柏里(採土場)(16)において 6 点が確認されている。

以上のことを簡単にまとめると、異形青銅器 A 群の時期にはそれほど鈴具が発達せず、円蓋形銅器や銅鐸が祭礼の場で奏でられた。また B 群の時期には鈴具が特に発達し、銅鐸の音色と相まって、祭礼の参加者の気持ちをかき立てたに違いない。ここで注意しておくべきなのは、円蓋形銅器や円形有文銅器もあることから、金属円板を棒などで打ち鳴らす形式の楽器も存在していたことである。ただし、鈴具の数量には比べるべくもない。続く C 群は、まさに異形青銅器を中心に行われた祭礼が大きく変質したものと考えられ、青銅器の数量、種類等は激減している。それでも鈴具としては胡瓜形鈴があり、銅鐸も祭礼の場で用いられていた。これに対して、円蓋形銅器に代表される金属円板を打ち鳴らす形式のものは姿を消している。果たしてこの段階に円蓋形銅器と同様の打楽器が存在しなかったかどうかを検討する必要がある。

Ⅲ. 坪里洞遺跡出土双鈕付蓋状円板

円蓋形銅器と形態が類似するため、関連する遺品と説明されることが多い慶尚北道大邱市坪里洞遺跡出土双鈕付蓋状円板に注目することにした。

慶尚北道大邱市坪里洞遺跡は 1974 年に臥龍山丘陵から武器類、馬具類等と共に各種の青銅器が出土した遺跡である。遺物の種類と数量からすれば、破壊された遺構は一定の年代幅を持っていた複数の墓の可能性もある。

各種青銅器の中には銅鏡も含まれているが、坪里洞遺跡の鏡群は、永川漁隱洞遺跡出土鏡群(17)との近縁性が指摘できる。漢鏡を模倣したと考えられる倣製鏡は漁隱洞鏡が 14.9cm、坪里洞鏡が 14.8cm とほぼ同じ大きさである。また中型鏡として虺龍文鏡が共伴すること、小型倣製鏡が共伴することなど共通点が多い。坪里洞遺跡出土一括遺物の中には、前記のもののように銅鏡として明らかな一群があるのに対して、銅鏡との関わりを明確にできない青銅器もある。それが双鈕付蓋状円板である。この命名に関しても、ある意味でこの双鈕付蓋状円板が「銅鏡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示唆するものであると思うが、自然に考えれば2つの鈕を持つ形状、鈕が中心に無いことなどからして、韓半島の青銅器時代に存在した多鈕鏡との関係を考慮すべきであろう。

坪里洞遺跡からは 2 点の双鈕付蓋状円板が出土しており、1 点が図化されている(7)。この図化されているものを双鈕付蓋状円板 A とし、図化されていないものを双鈕付蓋状円板 B とする。

・双鈕付蓋状円板 A

直径 19.9 cm、厚さ約 0.5 cm、鈕長 2.25 cm である。鈕高は 1.7cm を測る。全体的に粗い作りをしており、引き型ゲージを用いて鑄型に彫り込んだとは思えない。おそらくはコンパス状の器具によって大まかに輪郭線を引いた後、彫り込んだものと思われる。また鈕の直上と鈕の右斜め下方に欠損が見られる。いずれも凹面側から力を加えられている。鈕の直上の欠損はちぎれるように折れ曲がっている。

鈕の左斜め上方の鏡縁には幅 1 cm ほどの欠損があるが、この部分は製品完成後の欠損というよりも、鑄造時の湯回り不良が原因と思われる。

双鈕付蓋状円板 A には全面に渡って研磨仕上げなどが見られない。鑄型から取り出した時に鑄バリなどを除去するほかは、粗い砂などを用いて大まかに磨いただけではなかろうか。器面のほぼすべてが鑄肌と言ってもよい。特に注意すべきなのは、鈕の付いていない凸面側も凹面側と同じく鑄肌が残っており、鏡面のように研磨されていないという点である。鏡縁端部には鑄バリを取り除いた後、摩滅した痕跡が見える。鈕孔には、明確な紐擦れ等の痕跡は確認できなかった。

・双鈕付蓋状円板 B

直径 20.2 cm、厚さ約 0.5 cm、鈕長

2.4 cm である。基本的な観察所見は双鈕付蓋状円板 A と異なるところがないので、概要のみを述べる。

鈕の左方から亀裂が走って、向かって左側の鈕の下で止まっている。凸面側には向かって左側から中心部方向への段差がある。これは鑄込み時に鑄型に段差が生じ上下にずれたために鑄バリが発生したものであろうか。全体としては双鈕付蓋状円板 A と同様に基本的に鑄肌を残している。したがって、双鈕付蓋状

円板Bの凸面も鏡面のように研磨されてはいない。鏡縁端部には銕バリを取り除いた後、摩滅した痕跡が見える。明確な鈕孔の紐擦れ痕跡は見られない。

IV. 考察

双鈕付蓋状円板は鈕を2つ持つ特異な形態からして多鈕鏡との関係を考慮するのが自然な考え方であろう。ただし、多鈕鏡の鏡面に相当する側が凸面である点と、鈕の付く側、つまり多鈕鏡の鏡背相当部分が無文である点は、多鈕鏡との関係に疑念を抱かせる。しかし、多鈕鏡を副葬する最も新しい墳墓の一つと考えられる慶尚北道慶州市朝陽洞5号墳(18)からは多鈕素文鏡が出土している。もっとも、異形青銅器A群を副葬する東西里遺跡からも多鈕素文鏡が出土しており、より古い段階から多鈕素文鏡は存在している。しかし、ここでは鏡背文様の最も形骸化したものとして朝陽洞5号墳の多鈕素文鏡が存在すると思いたい。また凸面の問題についても、当然のことながら坪里洞遺跡は漢式系文物が大量に流入していた時期の遺跡であり、採集された一括遺物の中にも魍龍文鏡が存在し、それと共に漢式鏡を模倣した鏡が出土しており、この時期の韓半島の青銅鏡製作に漢式鏡が強く影響を与えていたことがわかっている。したがって、双鈕付蓋状円板の鏡面相当部分が凸面であるのは、同時期に盛行する漢式鏡とその影響を受けた倣製鏡製作技術によるものと考えるべきであろう。

双鈕付蓋状円板は形態上では多鈕鏡との関係を伺わせるものの、器面のほとんどを銕肌が占めているため、光を反射する機能を有していない。したがって、鏡として光を反射する役割は否定することができる。それでは、双鈕付蓋状円板はどのように用いられたと想定できるであろうか。一つは衣服などを飾ったとする装飾品説、もう一つは副葬用に作られたとする明器説、残る一つの可能性は音響機能を発揮した打楽器とする説であろう。

装飾品説に対しては、装飾目的に作られた器物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そもそも銕込み後の研磨をほとんどしていない状況を考えれば、成立しにくい想定である。代表的な装飾遺物である銅泡を見ても、文様が銕出されるものはもちろんのこと、無文のものでも研磨されることが多い。したがって、直径約20cm 近い大型の装飾品が研磨等なされないとは考えにくい。次に明器説を俎上にあげて検討すると、実用的な機能を失った副葬用の遺物ということであれば、双鈕付蓋状円板はもう少し小型化していても不思議ではない。直径約20cm という大きさは多鈕鏡の中では大型の部類に入る。このように考えると、装飾品説、明器説ともに成立する可能性は低いものと思われる。したがって、双鈕付蓋状円板は何らかの音を響かせていたと考える方が適切である。ただし、坪里洞遺跡出土双鈕付蓋状円板は土の付着および腐食が進んでいるため、使用痕等の詳細な観察ができないが、鈕孔部分に顕著な紐擦れの痕跡が無いこと、製作時からそれほど長い年月を使用せずに副葬されたと考えねばならない。また双鈕付蓋状円板が2点出土している点は、音響機能を有する青銅器とすれば示唆的である。後藤直は出土遺跡が明確な異形青銅器B群の竿頭鈴、八珠鈴、双頭鈴等においては、2つが1セットで出土することを指摘している(11)。2つの鈴具を互いに触れ合わせることで音を鳴らしていた可能性があらう。

仮に双鈕付蓋状円板の主要な役割が音響機能であったならば、双鈕付蓋状円板と多鈕鏡の形態上の類似からして、多鈕鏡も音響機能を有していた可能性があるだろう。多鈕鏡も異形青銅器との共伴関係を有し、且つ複数面の出土を伝えるものに限ってみれば、A 群の時期には忠清南道槐亭洞遺跡、忠清南道南城里遺跡において多鈕粗文鏡が各 2 面ずつ、B 群の時期にも全羅南道大谷里遺跡(19)から多鈕細文鏡が 2 面出土している。このような事例は異形青銅器 B 群の鈴具を中心とした鳴り物が 2 個一対のセットとして出土することと類似する。ただし、忠清南道東西里遺跡からは 5 面の多鈕鏡（多鈕粗文鏡 3 面、多鈕細文鏡 1 面、多鈕素文鏡 1 面）が、全羅南道草浦里遺跡(20)からは 3 面の多鈕細文鏡が出土しており、これらは多鈕鏡の共伴関係が必ずしも 2 面一組のセットとしては理解できないことを物語っている。

ここでは原位置で出土状況が確認できる異形青銅器の出土状況を検討してみたい。しかしながら、異形青銅器は開発行為に伴い偶然に発見されることが多いため、出土状況の検討に耐えうるのは中国遼寧省瀋陽市鄭家窪子 6512 号墓(21)出土異形青銅器と全羅南道草浦里遺跡出土異形青銅器があるに過ぎない。鄭家窪子 6512 号墓は防牌形銅器、喇叭形銅器などの異形青銅器と共に、多鈕粗文鏡および円蓋形銅器が出土している。円蓋形銅器の器面、特に鈕の付かない側の器面が研磨されているかどうかは確認していないが、槐亭洞遺跡、東西里遺跡の器面が研磨されて鏡面同様になっている点からすれば、おそらくは鄭家窪子 6512 号墓の円蓋形銅器も研磨され、鏡面同様に仕上げられていると推測できる。このように考えると、鄭家窪子 6512 号墓には多鈕粗文鏡と円蓋形銅器の 2 種類の鏡が存在している。多鈕粗文鏡と円蓋形銅器は副葬品配置でも明確に区別されている。被葬者の頭部上方の少し離れた位置に直径 8.8cm の多鈕粗文鏡が置かれている。被葬者の頭部と足部に直径 28cm の大型の円蓋形銅器が、その間をほぼ等間隔に直径 15cm の小型の円蓋形銅器が 4 点配置される。もう一つは馬具と喇叭形銅器と共に出土している 8 点の円蓋形銅器で、直径 31.8~27.4cm の大型の円蓋形銅器が 4 点、直径 15cm の円蓋形銅器が 4 点出土している。

副葬品の配置からすれば 3 者に分けられることになる。被葬者の頭部上方に置かれた多鈕粗文鏡の役割がどのようなものかは正確にはわからないが、これをシャーマンが祭礼等に用いる時、中心的な役割を果たす巫具であったと考えることもできよう。これに対して、人体上に置かれた円蓋形銅器の埋葬の場での役割は、被葬者を邪悪なものから守る辟邪を目的に配置されたと考えるのが自然であろう。そして、人体上や人体の横に鳴り物としても用いられたと考えられる大型の円蓋形銅器が 2 点一対に配置され、小型のものについても 4 点という 2 の倍数になっていることを重視すべきであろう。

全羅南道草浦里遺跡からは異形青銅器 B 群と共に多鈕細文鏡 3 面が出土している。これも偶然の発見によるため、異形青銅器の出土状況については木棺外に置かれていたことしかわからないが、棺内に配置された多鈕細文鏡 3 面の出土状況は検討可能である。人体の頭部上方に置かれた 3 面の中では最も大きい多鈕細文鏡とは別に、鄭家窪子 6512 号墓出土の円蓋形銅器と対応する形で、人体側部にやや小型の多鈕細文鏡と最も小型の多鈕細文鏡が銅剣各一振りの下に配置されている。

したがって、鄭家窪子 6512 号墓の多鈕粗文鏡および円蓋形銅器の出土状況と草浦里遺跡出土多鈕細文鏡の出土状況はほぼ対応すると考えてよからう。つまりは鄭家窪子 6512 号墓では頭部上方に置かれた多鈕粗文鏡とは別に、音響機能を有する円蓋形銅器が 2 点一対で人体周辺に置かれ、草浦里遺跡では円蓋形銅器の代わりに多鈕細文鏡 2 面が同様の意味合いで配置されたと想定できる。もっとも韓半島内での円蓋

形銅器の出土は各遺跡1点のみであり、円蓋形銅器の使用法は鄭家窪子6512号墓と韓半島内の遺跡では取り扱いが異なっていたようである。

上記のことを考慮すれば、東西里遺跡の多鈕鏡は破片となっているものが多いが、復元径からすると最も面径の大きい多鈕細文鏡が13.5cm、多鈕細文鏡が9.5cm、多鈕素文鏡が9.4cm、多鈕粗文鏡が8.1cm、同心円文鏡が7.0cmである。格段に大きい13.5cmの多鈕細文鏡を除くと、他の4鏡は近似した大きさとなっている。出土状況を確認することはできないものの、これも頭部上方に置かれた1面の鏡と人体近くに置かれた4面の鏡と解釈することはできないであろうか。

以上、若干の考察を行ってきたが、双鈕付蓋状円板は音響機能を有する青銅器に多く見られる2個一対であることと鏡面相当部分を研磨しないことからすれば、その役割は音響機能を発揮することと想定できる。さらには双鈕付蓋状円板と多鈕鏡に関連があるとすれば、多鈕鏡にも光を反射する機能以外に音響機能が伴っていたと考えたい。

V. まとめ

坪里洞遺跡出土双鈕付蓋状円板について音響機能を発揮することが主要な役割とする青銅器と考え、多鈕鏡と密接な関係があるとした場合、多鈕鏡の中には音響機能を有していたもの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た。もちろん、この場合も多鈕鏡の鏡面が研磨されていることからすれば、多鈕鏡の主要な役割は鏡本来の機能である光を反射することと考える。ただし副次的な役割として、多鈕鏡も祭礼等の場で音を奏でること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推測する。この場合、双鈕付蓋状円板と多鈕鏡はシャーマンが祭礼等を行う時、人体に近い位置に吊り下げたりすることでシャーマンの激しい動きにより触れ合い、音を出していたと考えることがふさわしいのではなかろうか。

古代においては一つの文物が持つ機能は現代の文物よりもさらに多様であったであろう。鏡についても姿見としての役割以外に、呪術的な役割を果たす事例は多い。また呪術的な力が宿る部分として鏡面以外にも、鏡背面側の文様に大きな力が存在していたようである。このような古代の鏡が持つ多様性の一つとして音響機能を考慮すべきであろう。そして多鈕鏡から光を反射する機能が無くなり、音響機能のみを受け継いだ青銅器が坪里洞遺跡出土の双鈕付蓋状円板なのではなかろうか。

謝辞

この論文に使用した坪里洞遺跡出土双鈕付蓋状円板の写真は国立大邱博物館の許可を得て2006年9月に撮影したものである。観察調査、撮影に様々な便宜を図っていただいた大邱博物館長金正完先生と張龍俊先生に感謝申し上げます。また論文執筆に当たっては、宮里修氏、李陽洙氏、熊博美氏からご教示とご援助を賜ったことについても感謝申し上げます。

註

- (1) 秋葉隆 1950 『朝鮮巫俗の現地研究』 養徳社 p.129~133
 甲元眞之 2006 「東アジアの青銅器 -東北アジアの単鈕素紋鏡を中心として-」 『國學院大學 21 世紀COEプログラム 2005 年度考古学調査研究報告東アジアにおける新石器文化と日本Ⅲ』 國學院大學 21 世紀COEプログラム研究センター p.302~305
- (2) 시미즈 야스지 2006 「원개형동기의 앞뒷면」 『文化財』 국립문화재연구소
- (3) 李殷昌 1979 「大田市 槐亭洞出土一括遺物調査略報」 『考古美術 第一号~第百号合輯』 下巻 韓国美術史学会
 池健吉 1978 「禮山 東西里石棺墓出土青銅一括遺物」 『百濟研究』 第9輯
- (4) 李健茂 1990 「扶餘 合松里遺跡出土一括遺物」 『考古学誌』 第2輯 韓国考古美術研究所
- (5) 李健茂 1990 「扶餘 合松里遺跡出土一括遺物」 『考古学誌』 第2輯 韓国考古美術研究所 p.35
 国立中央博物館・国立光州博物館 1992 『特別展 韓国の青銅器文化』 汎友社 p.101
 조현중 2006 「한반도 선사시대 악기」 『북녘의 문화유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p.206
- (6) 李健茂 1984 「伝 益山出土 円形有文青銅器」 『尹武炳博士 回甲紀年論叢』 尹武炳博士回甲紀年論叢刊行委員会
- (7) 尹容鎮 1981 「韓国青銅器文化研究 -大邱坪里洞出土一括遺物検討-」 『韓国考古学報』 10・11 韓国考古学研究会
- (8) 李健茂 1992 「韓国青銅儀器の研究 -異形青銅器를中心으로-」 『韓国考古学報』 第28輯 韓国考古学会
- (9) 三船温尚・後藤直 2004 「復元鑄造と出土遺物から考察する韓国八珠鈴の鑄造方法」 『高岡短期大学紀要』 第19巻 国立高岡短期大学
- (10) 本書掲載の宮里論文
- (11) 三船温尚・後藤直 2004 「復元鑄造と出土遺物から考察する韓国八珠鈴の鑄造方法」 『高岡短期大学紀要』 第19巻 国立高岡短期大学 p.185
- (12) 韓炳三・李健茂 1997 『南城里石棺墓』 国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第十冊 国立中央博物館
- (13) 朝鮮總督府編 1925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第2冊
- (14) 尹容鎮 1980 「考古・石造物篇」 『慶尚北道文化財地表調査報告書 (I)』 慶北大学校博物館
- (15) 金元龍 1952 「慶州 九政里出土金石併用期遺物에 대하여」 『歴史学報』 1
- (16) 梅原末治・藤田亮策 1947 『朝鮮古文化綜鑑』 第1巻 養徳社
- (17) 朝鮮總督府編 1925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第2冊
- (18) 国立慶州博物館編 2003 『慶州 朝陽洞 遺跡Ⅱ』 国立慶州博物館學術調査報告第13冊
- (19) 趙由典 1984 「全南 和順 青銅遺物一括出土遺跡」 『尹武炳博士 回甲紀年論叢』 尹武炳博士回甲紀年論叢刊行委員会
- (20) 李健茂・徐聲勳 1988 『咸平草浦里遺跡』 国立光州博物館
- (21) 瀋陽故宮博物館・瀋陽市文物管理弁公室 1975 「瀋陽鄭家窪子の兩座青銅時代墓葬」 『考古学報』 1 科学出版社

한반도의 청동기제작기술과 동아시아의 고경
韓半島の青銅器製作技術と東アジアの古鏡

2007年 10月 4日 印刷
2007年 10月 13日 發行

編輯
發行

大韓民國 國立慶州博物館
日本 奈良県立橿原考古学研究所
東アジア鑄造技術史学会

인쇄 : 도서출판 용디자인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동 207-46 TEL (051)805-6416

이 책에 담긴 자료는 무단으로 복사, 전재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